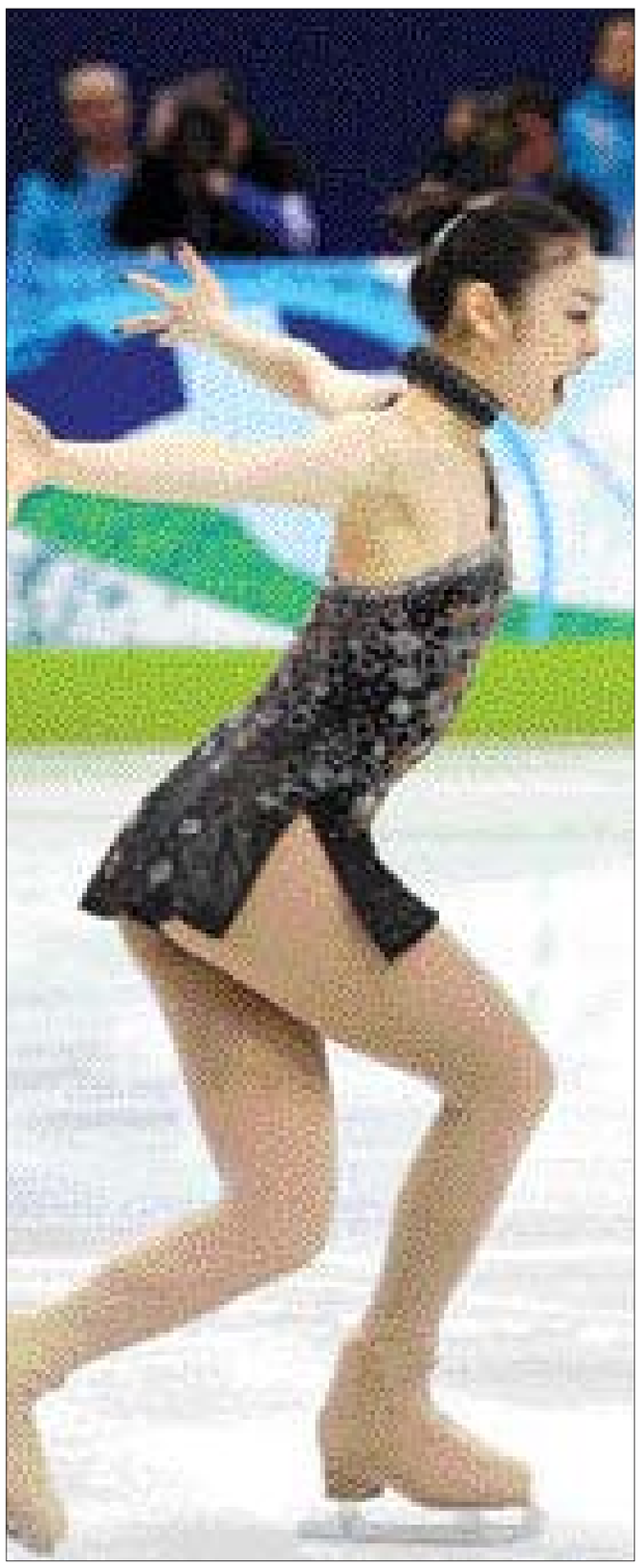
정석점프로 이겼다…'코리아 본드걸' 퍼펙트!



'피겨여신' 김연아가 24일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에서 완벽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 아사다 마오 압도…금메달 예약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장기인 '정석 점프'로 트리플 악셀(공중 3회전반) 점프를 내세운 아사다 마오(20·일본)와의 동계올림픽 맞대결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김연아는 24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 44.70점에 예술점수 33.80점을 합쳐 78.50점으로 바로 직전 연기를 펼친 아사다 마오(73.78점)을 4.72점 차로 앞서면서 1위로 올라섰다.

앞서 연기한 아사다의 높은 점수와 올림픽 무대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신이 지난해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세웠던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6.28점)을 2.22점이나 경신한 것이다.

이날 김연아와 아사다는 약속이나 한듯 단 한번의 실수도 없는 '클린 연기'를 펼쳐 객석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아사다가 이번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던 주특기 트리플 악셀을 깔끔하게 뛰어올라 73.78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김연아도 곧바로 완벽한 연기로 기존 여자 쇼트프로그램 사상 최고점(76.28)을 뛰어넘는 78.50점으로 아사다의 기세를 잠재웠다.

팽팽했던 승부를 가른 것은 역시 '점프의 교과서'라 불릴 정도로 완벽한 김연아의 점프와 음악을 완벽하게 해석해 연기와 일치시킨 탁월한 예술성이었다.

이날 김연아와 아사다의 프로그램은 첫 과제 외에는 모두 똑같았다.

첫 과제가 끝나고 나서 똑같이 트리플 플립을 뛰어올랐고, 레이백 스핀과 스파이럴 시퀀스에 이어 더블 악셀을 뛴 다음 플라잉 싯스핀과 스트레이트 라인 스텝 시퀀스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첫 연기를 고난도의 트리플 러츠-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점)으로 시작한 김연아가 기본점에서 0.5점을 앞선 채 시작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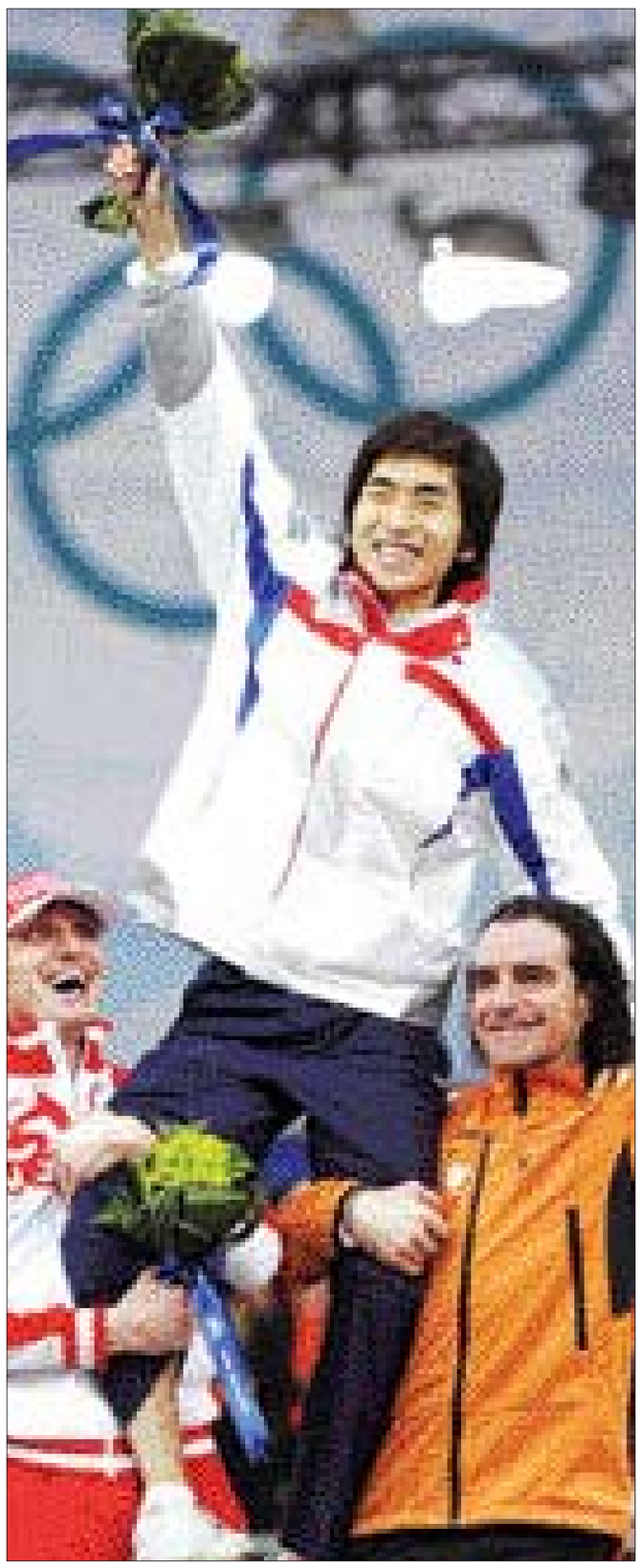
김연아는 놀라운 '가산점 행진'으로 아사다와 차이를 벌렸다.

아사다가 트리플 악셀에 성공하고도 첫 과제에서 수행점수(GOE) 0.6점으로 10.1점을 받는데 그친 반면, 김연아는 무려 2.0점의 GOE를 받아 12.0점을 챙겼다.

두 번째 트리플 플립에서도 김연아의 점프가 더 정확했다. 김연아는 아사다보다 1점 높은 1.2점의 GOE를 받았다. 김연아는 기술에서만이 아니라 해석과 표현력에서도 아사다를 앞질렀다. 이날 많은 팬의 사랑을 받는 '제임스 본드 메들리'에 맞춰 연기를 펼친 김연아는 모두가 기대하던 본드걸로 완벽히 변신,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했다.

김연아가 마지막으로 스핀 연기를 펼치는 동안 이미 객석에서는 박수가 멎지 않았고, 특유의 총을 쏘는 동작으로 연기를 마무리하자 환호와 박수로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다.

예술점수(PCS)에서도 김연아는 33.80점을 받아 32.28점을 받은 아사다를 눌렀다. 스케이팅 기술과 동작의 연결, 연기, 안무, 해석 등 PCS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김연아는 아사다를 눌렀다. /연합뉴스



이승훈이 24일 열린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경기에서 금메달을 확정지은 후 플라워세리머니에서 은메달리스트 러시아의 스코브레프(왼쪽)와 동메달리스트 네덜란드의 봅 데용(오른쪽)이 무동을 태우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1만m 금 이승훈의 인생역전

가난·좌절 극복하고 금빛 환호

24일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만m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을 거머쥔 이승훈 선수의 삶은 400m 빙상을 스물다섯 바퀴 도는 극한의 경기처럼 '입에서 단내를 내뿜는' 끈기의 인생 드라마였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스케이트를 탔던 이 선수가 심각한 위기를 처음 맞은 것은 초교 4학년 때인 1998년.

외환위기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 가세가 기울자 부모한테 '운동을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하지만, 스케이트 비용을 대기 어렵고 차를 처분해 아이스링크장에 데려주기도 힘든다는 얘기에도 어린 이 선수는 막무가내였다고 했다.

'혼자 새벽에 일어나 링크장에 가겠다'고 끝까지 버텨, 결국 아버지 수용씨가 "어떻게든 시켜보자"며 두 손을 들었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서 서울 신목고와 한국체육대에서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지만, 경쟁의 벽은 높기만 했다. 안현수와 이호석 등의 명성에 가려 '유망주' 이상의 찬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작년 4월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쇼트트랙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다. 최소한 올림픽 비행기는 탈것으로 믿었기에 충격이 그만큼 더 컸다.

이승훈이 고민 끝에 내민 승부수는 종목 전환이었다. 가족들에게 "아무 목표 없이 살 수 없다.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까지라도 스피드스케이트를 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장거리 대표주자인 최근원(의정부시청)처럼 두각은 못 드러내도 '최소한 후보선수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눈물의 선택을 한 것.

이후 스케이트화를 빌려 신고 빙상에 나선 이승훈은 더는 잃을 것이 없다며 투혼을 불태웠다. 온갖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을 발휘한 이승훈에게 가난과 눈물로 점철된 인생역정은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어머니 윤기수씨는 "당시 종목을 바꾼다는 말에 많이 걱정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마음은 참 대견하고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승훈은 24일(한국시각)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만m 종목에서 12분58초55로 완주해 장거리 스케이팅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연합뉴스